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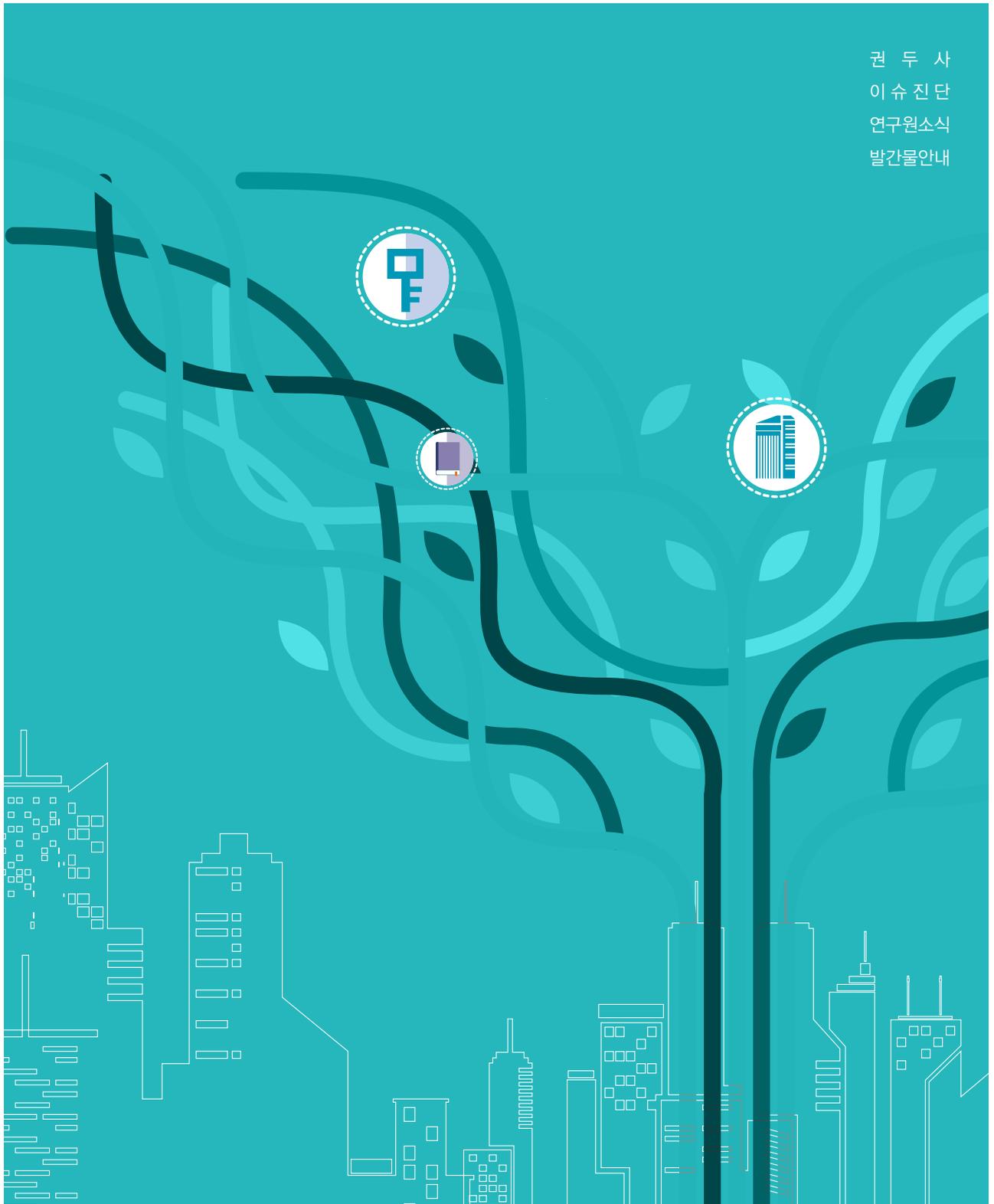
51호 2016년

8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51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명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 두 사  
이 슈 진 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 권 두 사

Message



“매일 1%씩 1년간 개선하면 37.78배 만큼 바뀝니다.  
항상 개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면 평범한 일상을 위대한  
역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신흥균입니다.

인사에 앞서 드린 말씀은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의 창업자 미키타니 히로시의 말입니다.

10년 전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업계의 원대한 꿈을  
현실화할 ‘싱크탱크(Think Tank)’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은 이 같은 기대에 걸맞게 미키타니 히로시의 말과 같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잡는 기회를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연구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안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연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조차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로  
드립니다.

다시한번 지난 10년간 우리 연구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더 내실있는 성장을 통해  
전문건설업계 뿐 아니라 우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중추적인 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신흥균

## 조속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한 재정건전화법

최근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사항을 정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정건전화법'이라는 이름의 동 법안은 각 재정의 운용주체별로 분산된 기존의 법령체계를 통합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이다.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도입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거액의 투자금이 요구되는 여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빚더미에 올라 온라인상에서는 '마계도시'라는 별칭까지 얻은 모 지자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호화청사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치적사업으로 지탄을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례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낭비사업들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은 진정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정건전화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면 무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국가채무의 한도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충분한 근거없이 사전에 설정한다는 부분은 특히 우려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특정 수치의 일률적인 적용'이라는 대안이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는 통칭 IMF라고 불리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단기에 기존의 절반수준인 200%로 낮추도록 강제한 바 있다. 문제는 애초에 산업별 적정 부채비율이라는 것이 복잡한 모델링보다도 경험적 수치로 도출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적합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보험산업에서 재보험요율의 책정과도 비슷), 이 200%라는 수치가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에 적절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운업체들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보유선박들을 매각한 뒤 해당 선박들을 용선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했고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보유선박이 없어 해운업의 호황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그 때문에 체결한 고액의 장기용선계약이 해운업의 불황기에 적자의 폭을 키웠다.

재정건전화법이 가지는 맹점도 상기의 사례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기관에 따라 필요한 재정지출의 적정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획일적인 수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의 시행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원샷법은 중소기업에겐 원샷이 아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과잉공급분야 산업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 특히 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업축진법, 통합도산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벤처법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이거나, 일부 산업이나 금융지원, 그리고 벤처 및 중소기업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법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번에 한시적(3년)으로 도입되어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모두이며, 실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원샷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주어지며, 세제지원 근거(제27조)와 자금지원을 위한 근거(제28조)가 별도로 마련되어 구체적인 지원으로 사업재편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지원 제도 또한 갖추고 있다.(제29조~제35조)

문제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하는 기업의 수준, 즉 규모나 조직구조, 구성인력 등 이른바 사업재편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큰 기업일수록, 업황 전망이나 사업재편 방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견기업 이하에서는 이 법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활력 또한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가용한 자원과 노하우는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샷법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재편을 도울 수 있으려면 국가적 비용이 부차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설적으로 이것이 향후 국가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조명수 선임연구원(cms38317@ricon.re.kr)





##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22호 발간



-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22호가 발간되었다. 건설정책저널은 건설업체 경영자,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건설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경영전략 및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계간)로 발간하고 있다.
- 동 간행물은 건설관련 이슈 등을 담은 논단과 함께 전문건설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로서, 건설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분기조사를 거쳐 작성되는 국내 유일의 지수이다.
  - 동 지수는 조사 대상기업을 대/중/소로 구분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권, 건축과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경영 및 산업환경이 필요한 정책개발과 수립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 건설정책저널 통권 22호 내용 〉

논 단	미국 프로젝트 발주 및 수행방식 혁신 사례를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혁신 방향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설계
	경계복원측량의 법리
	세계설계시장 경쟁동향 분석
	거시경제의 충격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해외사업 담당인력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업의 성패
연구리뷰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재시장 기초 연구
건설동향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3/4분기 전망(SBSI)
	원내소식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